

# 서울시 주부들의 생활양식과 환경보전행동에 관한 연구

최 남 숙(숭의여자전문대학)

## I. 서론

### 1. 문제의 제기

오늘날 환경문제는 전인류의 문제가 되었으며 이는 그릇된 생활양식과 가치관에 따른 것이다. 미국은 그 인구의 면에서는 세계 전체의 6%에 불과하지만, 소비를 위해서는 세계자원의 1/3을 소모하고 있다(Swagler, 1990).

또한 일본의 국민들은 세계 새우 생산량 중 1/3을 수입하여 식생활을 즐기고 있는데, 이 새우 양식을 위해서 태국, 방그라데시의 열대림은 파괴되고 있다(일. 환경청, 1989). 이와같은 풍요로운 생활의 향유, 무한정한 대량소비가 오늘날의 환경오염과 파괴의 원인이 되고 있다.

환경문제는 경제적 번영이 이루어진후 인류가 당면하는 반대급부의 부산물이며,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의 생활양식과 가치관을 생태적인 생활양식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폐기물에 따른 공해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 미래의 생활인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장소이며 개개인의 생존표현의 장소인 가정이다.

가정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정내의 인적, 물적 자원을 적절히 배분하고 조직하여 가족의 욕구충족을 위해 수행하는 가정관리행동(문숙재, 1980)을 통해 산출로 볼 수

있는 생활폐기물을 배출함으로써 환경오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정에서 폐기물 배출을 억제하는 환경보전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의 소비주체인 주부들의 환경의식이 중요하다. 각 가정에서의 가정관리행동양식은 가족들의 가치관과 생활양식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주부의 환경의식은 가정에서의 환경을 배려하는 생활양식이나 행동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환경문제에 관한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소비자의 의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사회인구학적 변수, 또는 자아실현성, 내적-외적 통제와 같은 인성변수 등을 다루어 왔다. 그러나 사회인구학적 변수는 설명력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인성변수는 신뢰성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인성변수가 갖는 한계를 넘어서는 설명변수로 주장되는 것이 생활양식이다.

Beich(1982)는 사회적 주의주장과 관련된 마아케팅 활동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환경의식적 소비자의 일관된 특성이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불일치의 대부분은 시장세분화의 기준으로서 성격변수를 이용하는 데서 오는 결함과 더불어 조사계획과 표본의 구성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생활양식변수가 기존 연구결과의 불일치를 극복하고 사회개혁 또는 사회의식적 소비행동의 촉진을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을 수용하는 표적시장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환경보전행동과 같은 사회의식적 소비행동의 촉진을 위해 생활양식이 환경보전행동을 얼마나 잘 예측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환경보전행동의 시작단계에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할 때 반드시 필요한 연구라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생활양식이 환경보전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이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어떠한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환경정책의 수립과 환경교육 자료의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2. 연구문제

이상과 같은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라 생활양식(절약추구적, 유행추종성, 사회지향성)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2. 사회인구학적 변수, 생활양식 변수, 환경교육, 환경의식이 환경보전행동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

## II. 이론적 배경

Brown에 의하면 행동이란 “행동자-환경” 관계의 변화라고 한다. 인간의 행동양식은 그들을 둘러싼 기술경제적 환경이나 물질적 환경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문숙재, 1983b) 문화적 환경에 기인한 가치, 규범, 관습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문숙재, 1983a, 재인용). 따라서 가정 내부와 외부에서 가정과 관련되어 일어나는 일체의 가정관리행동도 행동자 - 환경관계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문숙재, 1980).

따라서, 환경보전행동이란 가정관리행동에 환경보전의식을 포함한 행동으로 가정 내부와 외부에서 우리 생활과 관련되어 일어나는 일체의 인

간 행동(문숙재, 1986) 중 환경을 보전하며 재생하려는 의식을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생태적 생활양식의 선택으로 가정폐기물 분류배출 과정에서 폐기물을 덜 만들고 환경을 보전하는 환경친화적 행동의 수행으로 정의할 수 있다.

체계적인 접근을 바탕으로 가정에서의 환경보전행동은 투입 - 과정 - 산출 - 환류의 체계 요소에 대입하여 파악할 수 있다. 물건의 구매는 투입이고 가정에서의 사용단계는 과정이며 폐기물의 처리는 산출에 해당된다.

투입의 구매단계는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계약 체결을 하고 계약에 따라 상품을 인도받고 대금을 지불하는 과정으로 가정폐기물이 만들어지는 출발점이다.

과정단계는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원을 변형시키는 일련의 단계가 포함된다. 변형에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자원의 소비가 포함된다. 환경보전행동은 자원의 ‘소비’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행하는가에 관련된 문제라 할 수 있다.

효율성은 체계의 투입과 산출을 비교함으로써 알 수 있는데 투입된 자원량이나 질이 동일하더라도 과정의 효율성이 낮으면 환경에 배출되는 폐기물 양이나 질이 환경을 더욱 심각하게 파괴하거나 오염시키게 된다.

따라서, 과정에서 물품을 사용할 때 환경파괴나 오염물질을 덜 배출할 때 환경을 보전하고 또한 폐기재를 만들지 않으려는 노력이 폐기물 발생을 줄일 수 있다. 산출은 폐기물의 배출단계로서 개인적으로 폐기물 억제를 할 의지와 가능성을 얼마나 철저히하게 과정에서 행동에 옮길 의식이 있는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환경보전행동들 중 가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을 각 단계와 영역별로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가정관리 행동중 단계별 영역별 주요 환경모전행동

영역	투 입	과 정	산 출	환 류
의 생 활 관 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천연 섬유 제품의 의류를 구입한다.</li> <li>· 일회용 유아 기저귀를 구입하는 대신 형질 기저귀를 구입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탁시 세제는 세탁물에 알맞게 재서 사용한다.</li> <li>· 합성세제보다 세탁비누를 더 많이 사용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속옷이 떨어지면 걸레를 만들어 쓴다.</li> <li>· 줄어든 스웨터는 다시 찬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은 옷은 친척이나 이웃집 아이에게 준다.</li> <li>· 밉크나 여우등의 털로 만든 코트를 입지않는다.</li> </ul>
식 생 활 관 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소나 과일을 구입시 비닐 포장없이 구입한다.</li> <li>· 시장 붐 때는 가족수에 적당한 양을 구입한다.</li> <li>· 음료는 회수용 병의 것을 구입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식적으로 음식을 남기지 않는다.</li> <li>· 음식은 가능한 한 집에서 만들어 먹는다.</li> <li>· 알루미늄 박지나 호일의 사용을 피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식찌꺼기는 물기를 꼭 짜서 버린다.</li> <li>· 야채 찌꺼기는, 남은 반찬 등은 싱크대로 버리지 않는다.</li> <li>· 기름이나 소스가 붙은 냄비나 식기를 종어로 닦아내고 물로 씻는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달걀 포장 판지를 모았다가 상점에 되돌려 준다.</li> <li>· 튀김류는 튀김 볶음의 순서로 모두 사용한다.</li> </ul>
주 생 활 관 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프레이는 구입하지 않는다.</li> <li>· 비싸더라도 재충전이 가능한 건전지를 구입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어컨의 사용을 제한한다.</li> <li>· 세탁기는 가족수에 맞는 것을 산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전지, 수은 체온계, 형광등은 따로 버린다.</li> <li>· LPG통, 스프레이통, 1회용 라이터 등의 폐기시 폭발사고가 유발되므로 분류하여 폐기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달걀 포장 판지를 모았다가 상점에 되돌려 준다.</li> <li>· 빈 우유팩은 물에 씻어 펴서 말려 재활용한다.</li> </ul>
기 구 관 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수에 맞는 적은 것을 구입한다.</li> <li>· 지사일광 열기를 피하고 통풍이 잘 되게 설치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부 공간의 30% 정도만 식품을 넣어 냉기가 통하게 한다.</li> <li>· 문의 개폐는 적게, 개방시간은 짧게 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명이 다할 때까지 사용하며 사용가능한 것을 폐기하지 않는다.</li> <li>· 냉동냉장고의 팩킹이 땅가지면 곧 교체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형쓰레기는 방치하지 않고 버리는 날 폐기한다.</li> </ul>
교 통 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급적이면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전거를 즐겨 탄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화는 간단히 하여 전화료를 줄인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짐 주위에 산채로를 만들기 위해 나무를 심는다.</li> </ul>

\* 기구 관리는 냉장고 관리만을 다루었음.

자료 : 최남숙(1984a, 1984b, 1989b), 쓰레기 줄이기 시민단체(1992), 本多淳\*(1992)을 기초로 재구성.

### III. 연구방법

#### 1. 조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1993년 8월 서울에 거주한 20세 이상의 기혼여성 중 전업주부와 전문직, 관리직, 사무직, 판매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취업주부이다.

#### 2. 조사도구 및 자료수집과 분석

본 연구의 자료수집을 위해 예비조사는 1993년 8월 7일부터 10일까지 100명의 주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본조사는 1993년 8월23일부터 9월2일까지 질문지를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표집은 소득수준과 연령을 배려하여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통하여 배포하였으며, 학생의 어머니가 직접 질문지에 기재하도록 하여 회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자녀를 두지 않은 신혼기와 막내 자녀가 학교를 졸업한 성년기 자녀를 가진 주부를 표집하기 위하여 서울 YWCA와 대한주부클럽연합회, 교회, 병원 등을 통하여 면접법을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질문지는 총 1,000부를 배포하여 873부를 회수하였으며 최종분석에는 부실기재 및 누락된 질문지를 제외한 806부가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변수들은 다음과 같다.

#### 1) 사회인구학적 변수

본 연구에서 분석에 사용된 사회인구학적 변수들은 주부의 연령, 교육수준, 가계소득, 아파트 거주여부, 취업 여부 등이다. 이 중 아파트 거주여부는 아파트 거주자에 1점, 단독주택, 연립주택 등 거주자에 0점을 부여하여 가변수 처리를 하였다. 취업여부는 취업주부에게 1점, 전업주부에게 0점을 부여하여 가변수로 변환하였다.

#### 2) 생활양식

본 연구에서는 주부의 생활양식을 기존연구(이차옥, 1983, 황인창, 1989)에 기초하여 사회지향성, 절약추구성, 유행추종성의 세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이 세가지 차원들을 측정하기 위하여 각 차원별로 15개씩의 문항을 개발하여 질문지 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최초에 선정된 여러 문항들 가운데서 보다 타당한 문항을 고르기 위해 단계별 회귀분석의 방법을 사용하여 척도를 구성하였다(홍두승, 1992). 그 결과 구성된 사회지향성, 절약추구성, 유행추종성 척도는 각각 6개 문항의 합이다. 이들 척도의 하위개념으로 사용된 개별문항과 그 문항이 추가된 단계별 회귀식의 증결정계수는 표 2, 표 3,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2> “사회지향성” 척도 구성을 위한 단계별 회귀식의 종결정계수

단 계	개 별 문 항	R <sup>2</sup>
1	다른 살마에 비하여 나는 아는 사람이 많다	.341
2	여러 사라모가 사귀어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고 싶다	.558
3	기회가 있다면 통·반장이나 부녀회의 일을 맡겠다	.645
4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에 관심을 가지고 주시한다	.708
5	동창회나 모임의 경우 가능한 한 참석해서 교제의 폭을 넓히고 있다	.754
6	나는 현재 활발적으로 여성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795

<표 3> “절약추구성” 척도 구성을 위한 단계별 회귀식의 종결정계수

단 계	개 별 문 항	R <sup>2</sup>
1	귀찮아도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손수 만드는 편이다.	.372
2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잘 사지 않는다.	.560
3	유행이 지난 옷이라도 손질하여 입고 있다.	.667
4	집에서 바느질이나 뜨개질을 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752
5	유행이 지나거나 필요없다고 생각되면 과감히 버린다.	.805
6	나는 집에 고장난 물거이 있으면 스스로 고치려 한다.	.846

<표 4> “유행성 증성” 척도 구성을 위한 단계별 회귀식의 종결정계수

단 계	개 별 문 항	R <sup>2</sup>
1	무슨 일이든 유행을 의식하며 생활하고 있다.	.540
2	새로 생긴 유명한 쇼핑 세타건물 등은 꼭 가보려고 한다.	.678
3	화장이나 머리 손질에 신경을 쓰는 편이다.	.778
4	요즈음 의류에 관한 패션정보가 많이 게재된 잡지를 구매하는 편이다.	.829
5	옷과 구두 등에 뚜렷한 개성이 있다.	.864
6	요즈음 유행하는 오세 관심이 많다.	.891

### 3) 환경 보전 행동

환경 보전 행동은 최남숙(1984), 황인창(1989),이승신 등(1993)의 연구를 참고하여 20 개 문항을 개발하였다. 이 20 개 문항들의 합을 종속변수로 하고, 개별 문항들을 독립변수로 하는 단계별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9 개 문항으로 구성된 환경보전행동 복합척도를 구성하였다(표 5 참조).

<표 5> “환경 보전 행동”척도 구성을 위한 단계별 회귀식의 종결정 계수

단 계	개 별 문 항	R <sup>2</sup>
1	일상 생활에서 늘 환경을 보전하는 생활을 한다.	.408
2	비싸더라도 제충전이 가능한 건전지를 사용한다.	.568
3	채소·과일 구입 때 스티로폼랩 포장된 것보다 포장없는 것을 고른다.	.650
4	나는 이웃집보다 생활폐기물을 적게 만든다.	.711
5	사용하고 난 스프레이·부탄가스 등은 분류하여 버린다.	.759
6	음료수는 종이 팩·플라스틱병의 것보다 회수용 유리병의 것을 구입한다.	.797
7	재생활장지, 재생비누 등의 재활요제품을 사용한다.	.830
8	환경에 좋지않는 상품이나 과잉포장의 상품은 사지 않는다.	.855
9	음식찌꺼기는 물기를 꼭 짜서 따로 버리고 있다.	.875

## IV. 결과 및 해석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아래의 표 6과 같다.

<표 6>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806)

변수와 변수 값	빈도	%
<b>연령</b>		
20~29 세	118	14.6
30~39 세	321	39.8
40~49 세	272	33.7
50 세 이상	95	11.8
<b>교육 수준</b>		
중학교 이하	91	11.3
고등학교	325	40.4
대학 이상	389	48.3
<b>거주 형태</b>		
아파트	472	58.6
단독·연립등	334	41.4
<b>가계 소득</b>		
80만원 이상	39	4.9
80~129만원	208	25.8
130~199만원	278	34.5
200만원 이상	280	34.8
<b>취업 여부</b>		
취업	241	29.9
비취업	565	70.1
<b>주택 소유 여부</b>		
주택	279	34.6
전·월세	527	65.4

### 2.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생활양식

조사대상 주부들의 생활양식을 파악하기 위해 사회지향성, 절약추구성, 유행추종성의 3개 차원에서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살펴보았다(표 7).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것은 절약추구성(평균 20.19)이었으며 다음으로는 사회지향성(평균 18.30), 유행추종성(평균 16.02)이었다. 전체적으로

조사대상 주부들의 생활양식은 유행추종성보다 절약추구성과 사회지향성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사회지향성은 주부의 연령, 교육수준, 아파트거주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사회지향성은 주부의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 50세 이상의 주부집단이 사회지향성이 가장 높았으며 20~29세 집단이 다음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이 두 집단의 사회지향성이 높게 나타난 것은 자녀양육과 관련된 가정관리행동이 비교적 주부의 시간사용에 제약을 덜 주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사회지향성은 주부의 교육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사회지향성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높은 주부들은 좀 더 관심의 폭이 넓어 가정 밖의 사회적 사건에 대해 좀 더 긍정적인 생각과 행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부 집단이 기타 유형의 주택에 거주하는 주부 집단보다 사회지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남편의 직업적 지위, 교육, 소득 등이 높은 가정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아파트 거주 주부 집단의 사회지향성이 높은 것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높은 주부들이 좀 더 많은 지적 자원과 금전적 자원을 가지고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나타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절약추구성은 주부연령, 교육수준, 가계소득, 아파트거주여부, 취업여부 등 관련된 모든 변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약추구성은 주부의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주부의 연령이 50세 이상일 때 절약추구성이 가장 높으며, 30~39세, 40~49세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0~29세의 연령이 낮은 주부들의 절약추구성이 낮게 나타난 것은 이들이 비교적 절약을 강조하지 않는 사회에서 풍요를 누리며 살아온 탓으로 절약이 생활화되지 않았기

&lt;표 7&gt; 생활양식 변수들의 집단간 차이 분석

(N=806)

변수 및 변수값	빈도	사회 지향성	절약 추구성	유행 추종성
전체	(806)	18.30	20.19	16.02
<b>주부 연령</b>				
20~29세	(118)	18.76	18.96	17.76
30~39세	(321)	17.80	20.50	15.77
40~49세	(272)	18.31	20.17	15.64
50세 이상	(95)	19.40	20.73	15.76
		$F=5.58^{**}$	$F=4.86^{**}$	$F=9.03^{**}$
<b>교육 수준</b>				
중학교 이하	(91)	16.99	21.72	13.71
고등학교	(325)	17.99	20.84	15.55
대학 이상	(389)	18.85	19.27	16.95
		$F=11.72^{**}$	$F=21.61^{**}$	$F=29.58^{**}$
<b>가계 소득</b>				
80만원 미만	(39)	17.42	21.36	14.90
80~129만원	(208)	18.12	20.90	15.71
130~199만원	(278)	18.42	20.40	15.81
200만원 이상	(280)	18.47	19.31	16.63
		$F=1.21$	$F=8.03^{**}$	$F=3.85^{**}$
<b>아파트 거주 여부</b>				
아파트	(334)	18.62	19.48	16.71
단독, 연립 등	(472)	18.08	20.69	15.53
		$t=2.06^*$	$t=-4.18^{**}$	$t=4.12^{**}$
<b>취업 여부</b>				
취업	(241)	18.57	19.49	15.75
비취업	(565)	18.19	20.49	16.13
		$t=1.27$	$t=-3.20^{**}$	$t=-1.24$

\* $p<.05$ , \*\* $p<.01$ 

때문이다. 이에 비해 50대에서 절약추구성이 높게 나타난 것은 이들은 전쟁세대로서 자원부족을 경험하여 절약하는 생활이 체질화한데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주부의 교육수준에 따라 절약추구성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중학교 이하 학력인 집단의 절약추구성이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고등학교, 대학교의 순으로 절약추구성이 낮아지고 있다.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은 일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아 자원을 절약하는 생활이 불가피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가계소득에 따라 절약추구성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소득이 200만원 이상인 집단의 절약추구성이 가장 낮았으며 소득이 가장 낮은 80만원 미만인 가정의 주부는 절약추

구성이 가장 높아 소득이 낮은 집단일수록 절약추구성의 점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낮은 경우, 금전자원의 제약을 좀 더 많이 지각할 것이며 소득이 낮은 집단에서 보여질 수 있는 상대적, 절대적 자원부족이 이같은 절약적인 생활양식 유형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부 집단이 다른 유형의 주택에 거주하는 주부집단보다 절약추구성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부집단의 절약추구성 평균은 19.48인데 비해 기타 주택유형 거주 주부집단의 경우는 20.69였다. 이는 특히 대단위 아파트 단지인 경우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시설수준이 높고 편의생활을 유도하는 슈퍼마켓이나 음식점, 의류점 등의

이용이 용이하여 소비생활수준을 자극하는 집단 생활의 영향이라고 생각된다.

주부의 취업여부에 따라 절약추구성은 유의한 차이가 있어 비취업주부가 취업주부에 비해 좀 더 절약추구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주부들의 절약추구성이 낮은 것은 그들의 시간적인 제약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유행추종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주부연령, 교육수준, 가계소득, 아파트거주여부였다. 주부연령에 따라 유행추종성은 유의한 차이를 보여 20 - 29세의 주부들의 유행추종성이 가장 높았으며 40 - 49세의 주부들의 유행추종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은 주부들은 유행보다는 생활유지를 위한 물질적 요구의 충족이 더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생각된다.

교육수준은 유행추종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유행추종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이하의 집단은 유행추종성이 가장 낮았으며 대학이상의 집단은 가장 높은 유행추종성을 나타냈다.

가계소득에 따라 유행추종성을 살펴보면 80만 원 미만인 경우 유행추종성 평균은 14.90이었고 200만원 이상인 경우 평균 16.63이어서 소득이 높아질수록 유행추종성은 일관성있게 높아지고 있다.

아파트거주여부에 따른 유행추종성의 차이를 살펴보면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부들이 기타 유형의 주택에 거주하는 주부들에 비해 더 유행추종적이었다. 이는 교육수준이 높고 가계소득이 높은 주부들의 아파트 선호경향과도 관련된다.

### 3. 환경보전행동에 대한 중회귀분석

환경보전행동에 대한 계 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피기 위해 환경보전행동을 종속변수로 하고 연령, 교육수준, 가계소득, 아파트거주여부, 취업여부와 사회지향성, 절약추구성, 유행추종성, 환경교육 및 환경의식을 독립변수로 하는 중회귀모형을 구성하였다(표 8 참조).

사회인구학적 변수, 생활양식변수, 환경교육변수, 환경의식변수를 단계적으로 독립변수에 포함

시키므로써 환경보전행동이 설명되는 정도가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 파악하기 위해 단계별로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로 나누어 단계별 중회귀분석을 하였다.

결과 모형 1에서 환경보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수는 연령이었다. 연령이 높을수록 환경보전행동수행 수준이 높다. 모형1의 총 설명력은 1.3% 수준에 그치고 있다.

모형 2에서 생활양식까지를 독립변수에 포함시켜 분석했을 때, 절약추구성이 가장 큰 영향력을 나타냈다. 다음으로는 사회지향성, 그리고 유행추종성과 연령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주부들이 절약추구적일수록 환경보전행동을 보다 잘 수행하고, 사회지향적일수록 환경보전행동수행수준이 높으며, 유행추종적일수록 그리고 연령이 높을수록 환경보전행동을 잘 수행한다. 모형 2의 설명력은 14.2%로 모형 1의 설명력 1.3%보다 크게 증가하였다. 즉, 환경보전행동은 생활양식이 고려될 때 더 많이 설명될 수 있다. 이는 환경과 관련된 문제를 설명하는데 있어 사회인구학적 변수보다 자아실현성 검사도구를 이용한 연구(Brooker, 1975), 내외통제성을 이용한 연구(Tucker, 1978, 1980) 등 인성변수를 중요시하고 있는 경향과 일치된 방향을 보여준다.

모형 3에서 환경교육까지를 독립변수에 포함시켰을 때 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절약추구성, 환경교육, 사회지향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즉 절약추구적일수록, 환경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사회지향적일수록 환경보전행동을 보다 잘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3의 설명력은 18.5%로 모형 2의 설명력에 비해 4.3% 증가하였다. 이는 환경교육을 강화하므로써 환경보전행동수준을 높일 수 있지만 이보다는 좀 더 근본적으로 생활양식을 개선하는 것이 환경보전행동수준을 높이는 데 좀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사회인구학적 변수, 생활양식, 환경교육 변수 외에 환경의식을 독립변수에 포함시킨 모형 4의 설명력은 18.5%에서 21.1%로 증가하였다. 모형 4에서 환경보전행동에 가장 강한 효과를 미치는 것은 절약추구성이었으며 다음으로 환경교육, 환



<표 8> 환경 보전 행동을 종속 변수로 한 회귀식

독립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b	(β)	b	(β)	b	(β)	b	(β)
연령	.07**	(.11)	.05*	(.08)	.04	(.07)	.05*	(.08)
교육	.12	(.06)	.11	(.06)	.06	(.03)	.04	(.02)
소득	-.00	(-.07)	-.00	(-.03)	-.00	(-.03)	-.00	(-.04)
아파트 거주 여부	-.03	(-.00)	.16	(.02)	.16	(.02)	.01	(.00)
취업 여부	.08	(.01)	.21	(.02)	-.01	(-.00)	.09	(.01)
사회 지향성			.24**	(.17)	.17**	(.12)	.14**	(.10)
절약 추구성			.38**	(.30)	.35**	(.28)	.33**	(.26)
유행 추종성			.10*	(.08)	.08	(.06)	.10*	(.08)
환경 교육					.96**	(.22)	.88**	(.20)
환경 의식							.34**	(.17)
상수	26.98**		13.59**		14.58**		6.52**	
R <sup>2</sup>	.013		.142		.185		.211	

\* p<.05, \*\*p<.01, \*\*\*p<.001.

# b: 비표준화 회귀계수

## β: 표준화 회귀계수

경의식, 사회지향성, 그리고 유행추종성과 연령 등의 순이었다. 즉 주부들이 절약추구적일수록, 환경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환경보전행동 수행수준이 높고, 환경의식이 높을수록 환경보전행동 수행수준이 높으며 사회지향적일수록 환경보전행동이 잘 수행되고, 유행추종적일수록 환경보전행동이 잘 수행되며, 연령이 높을수록 환경보전행동이 잘 수행된다.

결국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생활양식 변수에 의해 가장 크게 증가되며 환경교육과 환경의식도 개별변수로서 환경보전행동의 설명력을 많이 증가시키지만 환경의식보다 환경교육에 의한 설명력 증가분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라 어떠한 생활양식을 지니고 있으며 또 생활양식이 환경보전행동 수행수준을 설명하는데 어느 정도로 유용한 변수인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본 연구 조사대상자들은 생활양식 면에서 볼 때 유행추종적이거나 사회지향적이기보다는 절약추구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절약추구성은 유행추종성과 정반대되는 생활양식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인 변수를 살펴보면 취업여부를 제외한 모든 변수들이 절약추구성에 유의적이었던 변수와 동일하며, 단지 영향력이 반대의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절약추구성은 주부연령, 교육수준, 가계소득, 아파트 거주여부, 취업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여 주부연령이 높은 주부집단일수록,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일수록, 가계소득이 낮은 집단일수록,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 등에 거주하는 주부집단일수록, 비취업주부일수록 절약추구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같이 두가지 생활양식이 교육수준, 가계소득, 아파트 거주 여부 등에 따라 반대로 나타나고 있음은 절약추구성과 유행추종성이 사회경제적인 지위를 반영하는 변수들에 의해 결정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또한 생활양식 중 사회지향성은 주부연령, 교

육수준과 같은 변수가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지향적인 생활양식은 사회적 관심과 사회적 활동참여의 동기화가 되며 가사노동의 부담이 비교적 적어 친척, 이웃, 친구, 단계 등의 사회망과의 관계를 선호하는 사회지향적인 생활양식을 가질 수 있는, 그리고 시간자원이 허용되는 경우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사회인구학적 변수, 생활양식 변수, 환경교육, 환경의식을 독립변수로 하고 환경보전행동을 종속변수로 하는 단계별 회귀분석에서 생활양식 변수의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생활양식 유형 중 절약추구성은 환경보전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다른 두 유형인 사회지향성, 유행추종성도 모두 환경보전행동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나타냈다. 이는 사회인구학적 변수보다 생활양식 변수가 소비자 기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게 나타난 기존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환경보전행동 수준에서 가정이 소유하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의 크기보다 그 가정의 가치관과 생활양식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환경보전행동에 대해 절약추구성이 환경교육이나 환경의식보다 상대적인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것은 환경보전행동의 향상이라는 목표 달성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선행연구에서 환경교육이나 환경의식이 환경보전행동 개선을 위해 중요하다는 점이 제시되어 왔지만 우선 가정생활에서 절약추구적인 생활양식이 습관화된다면, 환경교육은 좀 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일상적인 가정생활 속에서 절약추구적인 행동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하는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다.

또한 사회지향성이 높을수록 환경보전행동 수준이 높게 나타난 것은 사회 여러 분야에서 여러 사람으로부터 얻는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새롭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사회지향성은 주부들의 관심영역의 폭을 말해주는 것으로서 주부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사

회적 활동기회, 사회적 프로그램의 개발이 주부들 자신의 자아실현적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환경보전행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가정체계적 관점에서 보면 예전의 행동양식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안정지향적 체계보다 새로운 정보와 지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행동양식을 수용하여 변화된 균형을 모색하는 변화지향적 체계가 좀 더 환경보전행동 수준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유행추종성이 높을수록 환경보전행동 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유행추종성과 절약추구성이 상반되는 생활양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다소 의문점이 제기된다. 즉 서로 상반되는 두 생활양식 유형이 모두 점수가 높아질수록 환경보전행동 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추측할 수 있는 한가지 이유는 유행추종적인 경우에 환경보전행동을 잘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러한 주부들은 가정에서의 과업에만 관심을 갖기보다 사회적인 추세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최근 가장 큰 사회적 쟁점으로 대두된 환경문제에 대해 좀 더 관심이 집중되어, 이것이 환경보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또한 유행추종적인 주부는 내부지향적이기보다는 외부지향적일 것이므로 이웃이나 친구, 친척 등 다른 사회망과의 교류가 많아 정보획득 통로가 다변화되어 의식을 통해서 이러한 행동결과를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우선 방법론과 관련하여 척도의 개발이 필요한데, 본 연구에서 사용한 환경교육, 환경의식, 환경보전행동 척도를 더욱 정교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환경교육척도를 지식, 태도, 가치관, 정보원천 등의 여러 차원을 고려하여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밖에도 앞으로 환경보전행동의 연구모형이 정교화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던 자발적 절약 생활양식 척도와 관련변수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강이주(1984), " 청소년의 생활양식 유형분석 : 서울의 고교생들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노채영(1991), " 환경문제에 대한 소비자의 의식과 행동에 관한 연구: 광주시 여대생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_\_\_\_\_, 신효식, 조혜정(1991), " 환경문제에 관한 소비자의 의식과 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권 2호, pp.49 -62.
- 문숙재(1980), "도시주부의 가정관리행동에 대한 의식과 실태조사, 한국문화원논총, 37집, pp. 351 - 369.
- \_\_\_\_\_(1983a), "가정생활의 질 측정을 위한 예비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창간호, pp.43-53.
- \_\_\_\_\_(1983b), " 사회보장적 견지에서 본 가정의 안전기능", 대한가정학회지, 21권 4호, pp.107-116.
- 서정희(1986), " 환경문제 측면에서 본 소비자행동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_\_\_\_\_(1991), "환경문제에 관한 소비자기능과 관련변수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권 2호, pp.93-101.
- 이승신 외(1993), " 환경보존을 위한 소비자 능력", 한국소비자학회, 환경문제와 소비자, pp.2 - 37.
- 일.환경청 편(1991), 환경을 살리는 생활의 연구, 동경 : 대장성 인쇄국.
- 최남숙(1984a), "가정에너지 소비절약 의식과 행동에 관한 연구: 서울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_\_\_\_\_(1984b), "가정에너지 절약방안에 관한 연구", 송의논총, 8집, 송의여자전문대학, pp.1 - 18.
- 현금희(1990), "환경문제에 대한 태도와 행동 일치성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홍두승(1992), 사회조사분석, 서울:다산출판사.
- 황인창(1990), "생태적 마케팅의 효율적 전개를 위한 환경의식적 소비자의 특성분석",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Belch, M. A.(1982), " A Segmentation Strategy for the 1980's : Profiling the Socially Concerned Market through Life Style Analysis", Journal of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Fall.
- Brooker, G.(1975), " An Instrument to measure Consumer Self-actualization", May Jane(ed.),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Vol.2, Chicago : Association for Consumer Research , pp.563-575.
- Brown, L. R. et al.(1990), State of the World 1990, 김범철, 이승환 역, 지구환경보고서 1990, 서울:파남.
- Swagler, R. M.(1990), Consumers and the Market: An Introduction Analysis, 이기춘 외 역, 소비자와 시장, 서울:비봉출판사.
- Tucker, L. R. Jr.(1978), "The Environmentally Concerned Citizen: Some Correlates", Environment and Behavior, Sep., pp.389-418.
- \_\_\_\_\_(1980), "Identifying the Environmentally Responsible Consumer: The Role of Internal - 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s", The Journal of Consumer Affairs, Vol.14, pp. 326-340.

< ABSTRACT >

**A Study on Life Style and Environmental Behavior of Seoulite Housewives**

Choi, Nam Sook(Seong-Eui Women's Junior College)

This paper is to examine relative explaining power of socio- demographic variables, life style variables, environmental education, and environmental consciousness on the environmental behavior of housewives.

Major results were as follows:

As for life style, three different types such as socio-oriented, spare-life, fashion-oriented were examined. Spare-life style was most pervasive onSeoulite housewives. And spare-life style was emerged when housewives ages were old, education level was low, household income was low, house type was non-apartment, and wives was full-time housewives.

Life-style were most influencing variables on environmental behavior. And environmental education was more powerful variables than environmental consciousness.